

古 代 小 說
姜 太 公 傳



47

cm 1 2 3 4 5 6 7 8
Inches 1 2 3 4 5 6 7 8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Kodak Color Control Patches
© Kodak, 2007 TM: Kodak



강려공전

登錄號	3164
分類號	
分冊圖番	
書號	

화설은나라말년에동해허쥬짜에일위현사가잇스니성은강이요명은상이요자는자야
 요별호는태공이라일즈큰도량이잇서산중에쳐하야학업을함쓰더니한도인이와자
 아다려일너와나는곤륜산구허동원시던존이라네과속세연분이잇스니나에데자
 가되여도를배흠이엇더하노자아재배왈이는또한소생에평생소원이로소이다던존
 이임으로괴운을도하야한찌구름을일호여강상을티와숲식간에옥허동에일으니자
 애살펴보매경궁노디의장디합이인간에서보든배아닐너라자애이에머르려현묘한
 도학을다그매경던위디지술과제세안민지척을통하얏는지라일일은던존이팔보운
 광좌상에안자빅학동즈를명하야와네스속강상을불이라빅학동제도원에나아가자
 아를청하야사부야로예브르시디이다자애연망이보련압헤일으려배복하니던존왈곤
 륜산에올나온지몇히노자에대왈대지설흔들에올나와이제일흔들이되얏나이다던
 존왈네사십년공력씩를맞닷도다이제는왕이무도하야괴쉬진하고쥬나라이창창홍
 하리니네산에나려가서쥬를도와도탄에든창성을구하고를이장상이되여인간부귀

를바드라자애고알테지흥진부위에뜻이업삼고다말대도를세앗기를원하나이다런
 존왕내명쉬여추하니어긔지말고밤비하산하라하니즈애연연하야떠나지아니하거
 날남극선옹이갈오대즈애야괴회를만나기어렵고떠를가히일치못할지라하를떠런
 쉬임의정하얏스니도망키어렵도다어제비록산에나리나네성공후자연상산할날이
 잇스리라하니자애마지못하야행리를슈습하야런존제하직고도우를리별하고옥허
 등을떠나산에나려생각하되내본대형데자질이업스니장차어디로행하리오슈플일
 은재가흔가지깃드릴곳이업슴갓도다하고주저하더니문득생각하되내결의형데한
 송이인을차저의탁하리라하고도둔법을히하야도가남문스십오리송가장에닐으니
 문전에프른버들이드리웠거늘자이탄식왕풍광은의구하나인사는예긔지못하도다
 하고나가문을두다리니송이인이나와대희왕현데야사십년을소식이업더니그스이
 어디가잇디노자애곤륜산의잇든말을고하니이인이붓들고후당에드러가종일도록
 술먹다가이인이갈오되현데야도술을배왓스니성현에일을가히할지라사람에죄삼
 천에무후함이가장큰지라현데나히만도록취쳐를못하얏스니내현데를위하야중매
 할리라자애알내나히철십여세라엇지취쳐할의사를두리오이인왕그대나히만흐나
 즈직이업스면강시후사를엇지하랴하느노자애손을흔드러왕이일은중차의논하사
 이다하고두사람이늦도록술먹고자더니잇든날이인이마가장에가마원의를보고왕
 손일이영계를위하야중매하랴왔노라하니마원의왕엇던사람이노이인왕이사람은
 은해히주스람이나성은강이오명은상이오자는자애나소절이동가지의잇고당제인
 이니이라원심의대희왕현딜의말어웃지그르미잇스리오슈하셔레케하리라하니이

이금이금빅스십량을빙폐하고도라와자애드러일니왕내현데를위하야정흔하고왔노
 파즈이왕누집너재노이인왕나의척숙마홍의설이라지되점전하기로현대를위함이
 니슈허양신을갈희여가연을대지라자애사레하고릭일성친하니잇때마씨나히류십
 팔제더라자애마씨를취한후미양곤륜산에서대도못일으물한하야탄식으로세월을
 보내더니마씨왕군제무삼근심을하시나노자애왕내송형의집에잇서한갓의식만허
 비함을즐겨아니하노라마씨왕무삼흥리나하야보소서자애왕내본대아모것도몰으
 되산에잇슬제다만대광유리겉기를비왔노라마씨왕내드르니집신을삼아도일삭에
 슈십량식변다하니이제대광유리를밀들면매삭빅금은어들거시니뒤동산에대를뵈
 여광유리를결러서올가파르소서자애광유리를결어지고서울성내에드러가종일단
 이되한개도못팔고날이저물매집에도라와마씨다려왕내집에한가히잇슴을무료히
 녀겨광유리를결워다가팔나흐나종일도라단이되한개도팔지못하고배고프고어개
 의허리아파못단이겉도다하고광유리를싸헤집어던치니마씨왕이것이사람마다간
 용하는그릇이어늘잘단이며팔지못하고도로혀나를칭원하나노하고서로닷도니이
 인이뜻고밤비나와문왕이지못케라무삼일노부뷔닷도느노자애광유리를팔나단이
 든일을고하니이인왕그대부사의식구슈삼십인이라도내살닐것이니닷도저말나하

나마 씨알 백々 말삼이 조흔 뜻이나 후일 우리 부체 손을 뚝고 주려 죽을 이로다이 인왕대
 부야이 무삼 말인고 내 집에 모일이 만히잇스니 명일부터 면을 만드러 팔면 광유리에서
 나흐리라 하고 자아를 잇글고 후당에 가서 술을 두어 권하더라 잇는 날 자애 면을 멘드려
 가지고 서울드러가사 대문안으로 두루단이 되한 사람도 못지 아니하거늘 도로 남문으
 로나오니 해는 저물고 엿기와 허리아파 면을 나려 노코쉬더니 잇때 동남제후다 반하매
 무성왕 황비회군사를 들도련하고 도라오니 군새다 곤핍한 중 면을 보고 자애 다려 왈 우리
 저무도록 습진하고 도라오매 괴같이 심하니 한그릇 식먹으리라 하거늘 자애 저에 비곱
 하함을 보고 마지 못하야 면을 주더니 문득 하날도셔 광풍이니 러나 씨글이 자옥하거늘
 자애 왈 음식에 몬지가드니 그대 등은 고만 먹고 가라 하니 그놈들이 성을 내어 면그릇을
 뒤집으니 자애의 일신에 덤헛더라 자애 저놈의 성냄을 두러 게오그릇을 거두어 매고 도
 라오니 마씨막 조나와 문왕오날 우흥리를 언마나 하니 잇고 자애 썩지져 왈 그대로 하야
 내헛수고 만하얏노라 마씨왈 면 팔기는 쉽거늘 흥리를 잘 못하고 도로 허나를 썩짓느뇨
 자애 왈 내성내에 종일단이 되한 그릇도 파지 못하고 오다가 습진하든 군사에게 다일코
 도 광풍을 만나 다 불너 갔스니 도모지네 천인의 야괴한 일이라 마씨 차언을 듯고 말연대
 로 하야 다라드러 자아의 뺨을 갈기며 왈 네흥리를 잘 부하고 도로 허날을 원망하느뇨 송
 백々이 저 밤줍치를 련하도인이라 하야 나의 평성을 그르게 하도다 자애 대로 왈 천한계
 접이엇지 감히 장부를 능욕하는 다하고 두사람이 어우러져 흥풍치되여 구을 거늘 송이

인과 그쳐 손부인이나와 말녀 왈이 무삼 일노이다 지싸호느뇨 자애 노한사단을 전고하
 니이 인왕그 면을 파라도 갑시만치 아니하니 싸호지 말고 술이나 먹자 하고 자아의 손을
 잇글고 후당에 드러가서 술을 권하니 자애 절하야 왈 형장의 어엿비 녀임으로 여러 번 흥
 리하되다 잘못되었스니 엿지 붓그럽지 아니하리요 원컨디 흥리하는 모리를 가르쳐 소
 셔이 인이 자아의 근심함을 보고 민망이 녀겨 갈오대 요사이 성중에 주반점이 있나니 나
 를 좃차 가면 술과 밥을 만히 팔나라 하고 이른날 술과 밥을 만히 장만하야 자아를 주어 다
 리고 성내에 드러가 점을 버리고 안잣더니 사람들이 다른 점에서 스먹고 자아에게는 한
 사람도 아니오거늘 이 인이 자아다려 왈 이곳이 김허 사람이 아니오는 가시브니 저 큰
 길가에 가파라 보라 하고 드러가거늘 자애 주반을 가지고 길가에 버리고 안자시나 또한
 사람도 아니와 사먹더니 홀연여러 군새다라드러 술과 밥을 제것 먹듯하거늘 자애 어이
 업셔 바라보니 전일면 탈취하야 먹든 무성왕의 군사가 습진하고 옴이러라 자애 뵈그릇
 만매고 도라와 이인을 보니 이인이 위로 왈 옛글에 일넷스되 황화슈도 말을 때이다 하니
 사람이 운쉬 열이면 엿지도 혼날이 업스리오 하고 또은 자오 십량을 주어 왈이은 자를 가
 지고 우마장에 가우마와 양과 돛출사오라 하니 자애 우마장에 가우양을 모라오더니 잇
 때 은은왕이 무도하야 달괴의 말만듯고 생명을 살해하미하날이 지앙을 나리와 반년이
 나감으니 도정에서 관원을 명하야 비를 빌식 큰길거리에 고시하고 행인을 금하야 길을
 돌너보내더니 자애그일을 모르고 우양을 몰아바로 오더니 좌위소래 질너 왈 저 짐승

모라가는 사람을 잡아오라하니 자애 놀나 우양을 바리고 곱흔 곳에 숨었다 가나와 본즉
 우양이 하나도 없는 지라 차질 생각도 못하고 도라오니 이인이 자애 빈몸으로 온연 고를
 못거늘 자애 전후일을 고한대 이인이 위로 하여 알운 쇠하면 그러키쉬오니 녀며 말고 술
 이나 마셔 회포를 풀나 하고 대회원 포란 정에 올라가 술 먹더니 자애 문득 바라보고 왈 저
 언덕의 다섯간루각을 지으면 주인이 복록이 무궁하리니 일노써 은혜를 갑흐리라 하니
 이인 왈 그곳에 요괴 잇서 작폐하기로 어려워하노라 자애 왈 요괴는 제어하리라 하고 택
 일하여 려군을 다리고 언덕에 오르니 잇때 바야흐로 삼경이라 문득 슈를 가온대로서 대
 풍이 이러나며 비사 주석하며 흉악한 요괴 소리를 지르고 내다르니 려군이 놀나 다다라
 나거늘 자애 진언을 염하고 꾸지져 왈 업쥬이엇지 감히 남의 동산을 아스리 오하고 갈을
 두루니 문득 공중으로 뇌정 벽역이 나타나 요괴를 짓치니 다섯요괴씩히 연대여애 걸왈
 소축등이 상선 강림하신 줄 모르고던 위를 범하였스니 잔명을 살오소서 자애 갈을 들고
 대규왈 네다시 이곳에 잇지 말고 기산중의 가잇스면 일후너희를 부릴 때 잇스리니 다시
 인간에 작난하지 말나 요괴고 두하고 기산으로 가니라 자애 여군을 불러 역사 할새 잇때
 마씨 소부인으로 더브러역사함을 듯고 구경하러 오다가 대풍이 일며 요괴내 닳더니 자
 애도 술로 쓰러바림을 보고 대희하여 손부인을 도라보며 왈 우리가 군의 신과 함을 아지
 못하였더니 오늘 날 능히 요괴를 제어하니 곧 료산에서도 술을 만히 비화케 시도 다하
 고 의괴양々 하더라 이인이 또한 오다가 요괴에 형상과 뇌정 소래에 놀나 곱흔 구렁에 숨

잇다가 정신을 찰혀나 아올새 그 처손부인이 마씨로더 브러 자애와 문답함을 보고 문왈
 현대야 앓가엇지 요괴를 제어하였나 노자애 전후 슈말을 일은 디이인 왈 우리 반년을 갖
 처잇셔도 이런 도술 잇슴을 몰나도다 무슈히 칭사하고 역사를 맛친 후집에 도라와 자애
 다려왈 현대야 그러한 신기도 술을 배웠스면 사람에 길흉회복도 알것이니 서울가복술
 을 팔면 가산이 유여하리라 자애 왈 엇지 일々이 맛츠리오 마는 시험하여 볼이다 이인이
 즉시 성중의 드러가 집을 정하고 자애를 청하여 복술로 일흥을 명관이라 하니 과연 중인
 이와 길흉을 무른대 전후사를 신동이 맞치더라 일々은 혼초취나 무를 지고 못되선 생이
 영험하시다 하니 내이나 무를 지고 어대가 팔면 팔팔리 오자애이 읍히 보다가 일으되 오
 날그대의 식복이 잇는니 여차여차 한곳을 가면 길가에 버드나무 아래로 인이 섰다가 나
 무를 사자 하야 다리고 가면 주식을 배를 나 먹고 중가를 바드리라 하니 좌위다 헛도이녀
 기고 초취도 혼밋지 아니코나 무를 지고 차자가 더니 문득 버드나무 아래 과연 한로인이
 잇서 불너 왈 저나무 지고 가는 사람은 이리와 팔나 하거늘 초취나아가니로인 왈 내나 무
 를 사려하고 이곳에서 기다리되 삼죽훈나 무가 업기로 도로 가려하더니 그대를 만나스
 니 엇지 갑술해아 리리오 내집으로 가자하고 다리고 집에 도라와로인이 안흐로 드러가
 거늘 초취나 무를 늦코안자셔기다리더니 이 읍고 한동지 주식을 내여다가 주며 왈 우리
 원외그대다려이 주식을 먹고 기다리라 하디다 하거늘 초취한 왈 강선 성은 과연 신
 인이로다 하고 주식을 포식하고 안졌더니 이 읍고로 인이나와 돈을 주며 왈 갑시 비록적

으나 팔고 가라 하거늘 돈을 바다보니 극진한 종가어늘로 인에 개사래하고 바로 자아에
 게로 오니 자애소왈 내점이 었더하노 초뵈고 두왈 선생은 신인이라 원컨대 데지되여 놓
 혼도 술을 배와 지이다 하고 나무판 돈을 드리거늘 자애 밧지 아니하니 이러 무러 기록한
 소문을 듯고 원근사람들이 각기 돈을 차고와 신슈를 못거늘 자애 아니 맛춤이 업스매 사
 람이 구름되듯 하야 반년만에 돈이 삼십만량에 일은 지라이인 부처와 마씨 갖거왈 이사
 람은 진짓 신인이라우리 었지 밧츠리 오하더라 잇때 현원묘적학든 옥척비파요정이은
 왕궁중일을 탐지하고 오다가 남문안에서 사람이 만히 모히여 자애게 신수물을 보코
 몸을 변하야 절문내지되여 자아의 압해나아가 갈오대 선생은 나의 신수를 점복하야
 주소서 자애살펴보니 용모성음이 일정요괴라내요괴를 업시하야 사람의 해득덜이라
 하고 그녀자다려왈 그대 신슈도 보려니와 몬져 손을 보리라 비패그게 교를 모르코한
 손을 내밀거늘 자애그 손을 잡고왈 네 었지나를 속이라하는 다비패그게 교에 짜진술알
 고 겁내여 왈 나는 절문내지어늘 선생이 었지내 손을 놓치 아니하나 노죄우에 잇든 제인
 이 일오디 강선생은 나히 만흔어룬이라 었지 절문내자를 희롱하나 노자애왈 열위는여
 러 말스나 내 었지례의를 모르코 무례하리오 내이요괴를 죽여 만민에 후환을 덜너하노
 라 중인이 일시에 소래하야 왈이녀지 분명사람이라 선생이 었지요괴라하나 노자애생
 각하되이요괴를 살녀보내면 후환이 되리니 죽여 업시하리라 하고 버루들을 집어요
 괴대골을 치니 피소사나며 죽으니 자애해아리되이요괴거 죽었스니 노호면만다시

다라나리라 하고요괴의 손을 잡고 중인을 대하야 왈 제공등은 들네지 말고 내요괴 처치
 합을 보라 하니 중인이 소리하야 왈 강선생이 미석을 탐하야 절문내자를 죽였다 하니 순
 식간에 슈천명이 모혔더라 맛춤상비간이지나매 제인이이연유를 송상세고 하니 승
 상이대로 하야 살인자를 잡아오라 하야 문왈네 무삼연고로 사람을 죽인다 자애왈이것
 이 사람이 아니라 분명요괴인고로 죽여 세상사람에 화를 면코즈하미이다 승상왈네
 임의 죽였스면 사례를 노치아니스 었진것이 노대왈이것이 천년묵은 요정이니 아조죽
 음미아니라 거 죽죽음 이때 노흐면 변화하야 다라날 것이요 또 법사라고 드래도 증험을
 하겠기로 노치안나이다 승상이 자아의 현양한 룡처와 언어에 유리함을 듯고 심중의
 스혹하야 제인을 분부하되이인을 오문으로 대령하라던 자세알외여 처결하라 하고
 오문에 드러가 조회를 청하니 쥐드러오라 하거늘 승상이 적성루압해나아가 주에게 알
 의되신이 남문으로 드러오옵더니 늙은매복하는 술재 절문내자를 죽였다 하옵기로 선
 이사스라이다사리 못하야 알외나이다 쥐밧쳐대답지 아니하야서 달괴주왈 승상주
 언을 드르니 가히 죽은 사람의 근본을 아라 국법을 밧힐 것이니이다 쥐왈어 처의 말이을
 타하고 즉시 살인한 사람을 부른디 자애한 손으로요괴 죽임을 잡고 적성루에 이르러고
 두배알하거늘 쥐왈네 무삼일노사름을 죽이며네거 주성명은 무엇인다 자애다시 절하
 고 주왈 신의 성명은 가상이 읍고근본동해혀 주짜에서 오다가 일죽제상을 하적하옵
 고 산간의 도인을 조차음양복술을 배화삼기로 남문안에서 백성의 선수를 점복하옵더

니 문득 한계집이와 선수를 보아 달나 하옵기에 신이 보은즉 사람은 아니요 정령한요
 괴음기로 세상 사람의 화를 덜고 자하와 베풀로 쳐 죽였나이다 쥐왕 그계집얼골이 분
 명훈사람이 어늘었지요 괴라하느뇨 자에 왈 신이요 괴근본형상을 보시게 하옵거늘 자에
 셤홀유시면 자연 그본상이 나타나게 하리이다 쥐좌우를 명하여 셤홀가져오거늘 자에
 요괴의 옷을 벗기고 가슴의 부장을 벗쳐 셤우히듯 코불을 지르니 불셀치하날에 자옥하
 되고요 괴피육이 타지 아니하고 살빛치조금도 변함이 업스니 쥐자아다려 왈 저불뿔치
 저리성하되요 괴살이 타지 아니하니 요괴의 분명하도다네 슈히 그본상을 내게 하라 자
 애소매로서 화주세홀내여 불속에 더져 화세를 도으니 그구슬은 일월정기로나는 불
 이라요 괴엇지 그화를 면하리요 요괴일떠나며 왈 네나와 원쉬업거늘 엇지나를 불에 태
 와 죽이나노하며 소태를 버려 죽이지르고 본상을 내니 한옥돌노만든 비파이라 주는
 깃거하나 달기는 마음이 무어지는 듯하여 심중에 헤아리되져 강상이 비파의 본상을 아
 라니니 미구에 나를 해할지라 내이놈을 버슬을 놓히식히고나 종에 죽여 후환을 업시하
 리라 하고 주왈 저옥석비파를 내첩을 유시면 재줄을 언저 곡조를 맛초와 폐하의 뜻을
 절겁게 하리이다 하고 또 강상을 봉작하여 그공을 표하소서 하니 쥐점두하고 즉시 근시
 를 명하여 비파를 내달기를 주니 달의 희성단을 먹여 제동렬을 숨으니라 쥐강상을 하
 대부를 봉하고 사련감을 하히시니 강상이던은을 속사하고 송이인의 집에 도라와 이
 인과 마씨로 더불어 즐기고 다시 도성으로 오니라

각설션시에 은왕 쥐녀와 씨사 당에 진향갓다가 녀와 씨의 화상이 산사람이 처화용일태
 자약함을 보고 흠모하여 괴롱하는 글을 지어 벽에 붙치고 도라와 전々 불매하여 녀와 씨
 만흠모하더라 옛때 녀와 씨 벽상에 글을 보고 대로 하여 왈 이음학무도한놈을 망케 하리
 라 하고 현원묘직 현요괴 셋을 불러 분부왈 녀희등이 은왕궁중의 드러가 은왕을 미혹케
 하야 십년내에 망케 하되 성령을 상하지 말나 하니 하나흔구미호요 하나흔구두치요 하
 나흔옥석비파 정녕이라 세요괴 청령하고 청룡이 되어 궁중에 드러가 간계를 베푸니라
 잇때 괴주후소호에게 혼녀애잇스니 일흠이 달과 자석이 잇슴을 듯고 소호를 불러 후
 궁으로 청하니 소호가 구지스양하다가 못하여 달과 리고 경스로 오더니 은주에 널
 으러 날이 점을 매씩 점쳐서 쉬더니 밤중은 하야 음룡이 일며 축불이져 거늘 소호놀나
 드러가 보니 시녀 등은 정신을 일코달기는 홀노 평상아리서 부친을 불러 왈 앓가 음룡이
 일며 고이 혼소리나는 중시네 모다 것구려 지옵기로 소네 평상아래 숨어 화를 면하얏나
 이다 하니 이는 구미희음룡이 되어 경각간의 달과 리를 잡아 먹고 그형용과 성음을 지었스
 매 그부친도의 후업시달과 의 무사함을 다 행히알더라 쥐달과 리를 마저한번 보고 정신이
 표탕하야 취한듯 밋천듯 하야 정사를 전폐하고 날마다 적성루에서 잔치하야 즐기며 달
 과 리말하는 대로 시행하야 충낭과 백성을 살해하기로 일삼을새 루하에 슈백길을 파고 그
 속에 배암수만슈를 나코 궁녀 중 불합한 것 잇시면의 복을 벗기고 구렁에 더져 못배암에
 게물녀 죽게 하야 일흠을 채분이라 하고 또 구렁이 동을 세우고 밋혜슬을 피오고 초창간

하는 신허잇스면 그기동에 을녀 불에 쪄려 죽게 하니 신허은 포락 지형이라 또 구 두 처
 일흠을 호희미라 하고 옥석 비파의 일흠을 왕귀인이라 하여 달과와 갖치 날마다 살해인
 명하기를 일삼으니 아해 배부인의 배를 가르며 아 참물 건느는 사람이라 다 리 새금이 그 중
 의 한 가지라 이력므로던 해 흉々 하더라 화설 주왕의 중궁원비 강황후는 동백후 강환초
 의녀야 요강 문환의 누의 요서 궁귀비 황씨는 무성왕 화미호의 누의 요형 경궁궁비는 양
 씨라 제궁후비 다정々 현숙하디 주왕이래 평을 누리우 순풍조하고 국대민안하디니 쥐
 달과를 취한 후로 정재 날 노어 지러 위주야 잔채를 배설하고 가 무로 제월을 보내며 충양
 을 살해하니 강황 휘탄 왈련지 황은 주석하야 만민이 신허하니 이는 취란하는되라 내 몸
 이 황휘되어 엇지 안자서 망할 보리 요이애 선궁에 나아가 주왕 제 주왕 폐해 주석에 침
 그 하사 정사를 폐하시니 사적의 위태함이 조석에 잇슬지라 복원 폐하는 전치물을 곳쳐
 간당을 불니치고 어진 정사를 닷그 시면 종사의 다 형 일가 하나이다 하고 환궁하니라 차
 설 때 사々 망이면 각 궁비 빈이 황후 폐조 현할 새 황귀인 과 양귀인이다 황후 좌우에 피섯
 더니 달과 또한 나와 조알하거늘 황휘 좌를 주고 정석 왈 소귀인아 던지 매 일가 무연락에
 침익 하사 정사를 전폐하시고 충양을 살해하심이 다 내가 성총을 미혹케 하고 극간 처야
 니 함이니 네 기리 그러면 국법을 면치 못하리라 달과 분을 찰고 늦기며 도라와 주에게 황
 휘 수 죄하든 말을 낫々 치울며 고하니 쥐대로 왈 내 황후를 폐하야 죽이 고경으로 황후를
 봉하리라 하니 달과 더욱 교양하야 니를 말며 왈 내던자에 총비어늘 황휘 정궁된 체를 밋

고나를 이리 슈욕하니 내 당々이 원슈를 갑호리라 하고 간신 비중우 흠을 처결하야 계교
 를 베풀더라 차설 쥐 단연을 다고 슈선궁으로 나와 본궁루를 지낼 새 사람이 보검을 들
 고내다 르며 크게 웨여 왈 혼군이 무도하야 황을 주석하매 내 중궁의 명을 바다 혼군을 죽
 이고 우리 주공으로 임군을 삼으리라 하고 내 닷거늘 시위군졸이다라 드려 결박하야 살
 니고 문초한 족자객의 생명은 강한이라 동백후 강환초의 장슈로 황후의 명을 바다 주왕
 을 죽이 고 강환초로던 자을 삼으라 함이라 하거늘 쥐발 연대로 왈 강휘 점의원 비로 엇지
 모역하야 죽이려 하는고 하고 죽시전지하야 황후에 눈을 빼이 고 손을 불노지져 포락하
 야 조진케 하니 슬프다 황휘 천성이 정々 현숙함으로 직언하다 가 참형을 당하니던 리 엇
 지 무심하리 오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이다 슬허하는 듯하다 달과 또 주하되 강후에 죽
 음을 강후의 아비 환최 알면 필연군사를 일으켜 환을 지을 것이라 이 제한 제후에게 소제
 후이 백식 영술 하얏시니 문져사 전대 제후를 불너 머리를 버혀 호명하면 팔씩 쳐 근제 휘
 감히 문져 동치 못하리이다 쥐왈 어쳐의 말이올라 하고 죽시 조셔를 말하야 동백후 강환
 초와 남백후 악송우와 서백후 희창과 북백후 송후 호를 부를 새 사신을 네 곳으로 보내니
 라 차설 사명이 서기에 일으니 희창이던사를 마자던은 을 속사하고 일을 쪄 날 새 모친 태
 강게 하직하니 태강 왈 네 선던슈에 칠년액이 있다 하디니 조심하야 단녀오라 창이 부복
 대왈 해애 비록 칠년익이 잇스나 선흉후 길하오니 녀녀 하실 배아니로 소이다 하고 배
 사하고 쪄나니 라 원태서 백의 젖이네 히요 비 빈이 스물네 히요 아 들은 아 혼 아 흠이니 장

자는 백읍고요 차자는 말이니 즉 무왕이라 흉々이 썩나여 러바 빈과 여러 아들 과 만 조백
 관을 다 작별할새 심리 장정에서 부자 근신이 눈물을 썩려 리 별하고 흥한 지여 러날 만에
 한곳에 이르러 금비 붓다 시오며 되성벽 녀이던 디 문혀 지는 듯하매 성한 슈풀을 차져
 피하디니 운천 천하며 장성이 하늘 노젓차 썩러 지거 날 종자를 명하야 차자 오라 하
 니 종지 녀소하고 가차디니 어린 아해우는 소래 구충 것 해셔 나거늘 나아가 보니 한어린
 아해어늘 안아다가 셔 백제 드린대 셔 백이 살피보니 얼골은 도화갓고 눈은 불빛갓흐니
 진짓의 남제라 대희 왈 내아들이 아흔 아홉이 러니 이 제 백을 채오리라 하고 마을 사람에
 게 부락 하야 올 때 다려가 리라 하고 마을 노향하디니 한도인이 표연이 말압해와 게 슈왈
 빈되군 후제되나 이다 셔 백 후황망이 말게나려 왈 감히 못잡나니 어느 명산에 게시며 무
 삼말을 가르치랴와 게시니 잇고도 인왈 반도는 종남 산 옥중동 잇는 운중지 움더니 앓가
 우뢰에 장성이 나려 왓스매 차져 왔더니 이 제 존안을 뵈오니 다 형이로 소이다 셔 백이 좌
 우를 명하야 아해를 갖다가 도인을 주니 도인 왈 이 아해를 길너 현후도 라오시는 날 밧드
 러드 릴 것이니 현후에 뜻이 었더하시니 잇고 셔 백 왈 명대로 하려니 와이 아해 일흠을 무
 어시라 하리 잇고도 인왈 우뢰 소래에 나려 왓스니 되진 자라 하사이다 하고 아해를 안고
 종남 산으로 가니 라차 설셔 백이 무스히 오관을 지나 황하 슈를 건너 조가에 와 금정 관역
 에니 른 즉 역중에 삼로 제 휘문져 왓스니 동백 후강 환초와 남백 후악 송우와 북백 후송
 후호삼위 제 휘역에서 술먹다가 셔 백 후를 마즈 좌정 후다 시술을 나와셔 로 권하매 밤이

임의 길 헛더라 한역 줄이지나 며 날오대 널위대 신이 금야는 즐기거니와 날이 밝으면 북
 은 피져 자거리에 물드리이다 하거늘 셔 백이 듯고 역 줄을 잡아 문초하니 그중에 요복이
 주왈 소인이 김흔 밤에 로애 드르시는 줄 모르고 비밀사를 누설 하얏삽더니 이제 밧갓되
 었스매 었지은 휘하 리 잇고 달기의 참소로 황 휘 참형을 당하고 또 사위대 신을 명일도 조
 에 함씩 저자에 버혀려 하옵기로 소인이 무망 중 말나음을 썩다지 못하얏나이다 강 환희
 급히 문왈 황 휘 참형을 었디 케 당하야 게시뇨 요복 왈 황 후 낭々을 셔 궁으로 나려 한 눈을
 빼고 손을 불노지져 포락 하얏나이다 강 환희 그 말을 드르매 몸을 칼 노점이 는 듯마음을
 기름으로 지는 듯하야 한 소래 크게 지르며 것구러 지거늘 셔 백이 붓드 러 일으려니
 환최 동공 왈 내아해 눈을 빼고 손을 포락 하얏다 하니 고금에 이런 일도 잇는가 하며 종야
 도록 부르지스다라 날이 밝으매 사전 제 휘 다 이름을 고하니 간신 비종이던 자 제가 만이
 주왈 사전 제 휘 글을 올릴 거시니 글을 보지 마르시고 전지 하야 후 백 업시 사제 후를 버히
 심이 상척 일가 하나이다 하디니 쥐던 에 올으니 사전 제 휘 면하에 일으러 글을 올니 거늘
 쥐보지 아니하고 문져 강 환초를 불너 왈 내 죄를 아는 다 환최 주왈 동로를 엄히 죽회여 신
 정을 극진이 하얏사오니 무삼 죄 잇사오리 잇고 폐해 총비에 요언과 간신의 참소를 드러
 황 후를 참형하고 총양을 살해 하야 종사를 망케 하시니 이제 요비와 간신을 멀리 하고 어
 진정사를 닦고 시면 죽은 자도 행심이 요산자도 흥심 일가 하나이다 쥐대매 왈 늙은 역적
 이 쌀을 가라 처 임군을 죽이고 찬위하라 하는 죄 티 산갓거늘 무삼 간사한 말을 하는 다

고무스를 호령하여 환초를 오문에 이르러 내어 버혀졌담으니 환최죽기에 이르도록 부짓
 기를 뜻치지 아니라 서백후희창과 남백후악송우와 북백후송후호 등이 글을 읊을 때
 폐해송등함으로 어진정사는 업고 소인을 천하하고 군자는 멀리하고 주석의 침익하며
 황취어질고래되잇서 글을 읊거늘 참형을 만나고 달고는 궁중을 더러이 되정궁을 봉
 하시며 대선을 족담아 국가동냥을 폐하며 포락을 지어 총간하는 법을 막으니 신등은 원
 권대비중우혼을 참하시고 달고를 폐하여 엄속하게 하시면 천심이 순환하여 천해대평
 하리이다 쥐보기를 다하고 대로하여 글을 써져 바리고 서안을 치며 대호왕 무리역적을
 밋비효슈하고 알의라 하니 무재일제히 삼위대신을 잡아 널재비중우혼이 출반주왕강
 환초는 시군하라는 악이 잇고 악송우는 님군부짓는 죄잇고 희창은 님군을 능모한 허물
 잇스나 송후호는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도으며 적성루와 슈천궁지은공이 잇고 또 한중
 인을 따라 함이 오제 뜻이 아니이다 쥐본대비중과 우혼의 말은 사사언청이라 명하여 송
 후호일인만사하라 하거늘 무성왕황비호와 송상의 육군과 희창의 망언은 용납지 못하리니
 일제히 간하니 쥐왕강 환초의 모역과 악송우의 육군과 희창의 망언은 용납지 못하리니
 경등은 망녕도이 구치말나 황비희조주왕이 제사진대제후를 다 죽이면 이 백국소제회
 다 제님군이 죄업시 죽다 하야 필연반하리니 폐해늘로 더부러 종사를 보전하리요 북원
 폐하는 지삼생각하소서 쥐왕희창은 총남지심이 잇슴을 드렸스니 경등의 말을 드르려
 니와 악송우욕구한 죄는 사치 못할지니 경등은 번거이 구지 말나 하고 무사를 호령하여
 악송우를 오문밧게 효슈하고 희창은 노회보내려 할재비중우혼이 주일희창을 노아 보
 내시면 통을 바다에 노흘이라 만일 희창이 환국하여 가문환악순을 처벌하면 간패설날
 이 업슬 것이니 희창을 유리옥에 가두어 던해 티평한 후 노음이 가하니 이다 쥐견지하되
 희창의 죽을 죄는 사하거니와 본국에 도라감은 허치아니 하나니 아직 유리가 잇다 가
 던해 평안하거든가 폐하라 하니 서백이 탄왈 내엇지 선천슈를 면하리요 하고 유리옥으
 로 나아가시니라

차설동백후남백후의 제장이 성야로도라 가서 후의 아들에게 고하니 강환초의 아들문
 환은 사십만병을 발하여 옥흔관을치고 악송우아들순은 군사이십만을 발하여 원삼산
 을 칠재사백진소제회또한 반하여 접응하니 무성왕황비희탄왈이진병이 이러나 때던
 해다 반하리니 성령이 어내 때 평안하리요 하더라 차설쥐달기로 더부러 적성루에서 잔
 채할새 술이 반취하야 달고 출쥬며 노래하니 삼궁비벤과 룩원궁내일제히 소래하야 창
 화하되 기중궁녀 칠십여인은 노래를 아니하고 술품을 띄여 눈물흔적이 잇거늘 달고 출
 쥬다가 살피보니 본디 강황후의 시녀로 구쥬를 생각함이라 달고 노왈네쥬되모역하다
 가 죽엇거든너희등이 원심을 풀어여차하니 오래 두면 궁중에 큰환이잇스리라 하고
 쥬에게 고하니 쥐대로 하야 궁녀의 옷을 벗겨 채분에너허사갈에게 물너쥬게하니 가련
 하다 철십이인궁내채분구렁을 구버보니 루천슈배암이 서로 일키여 머리를 두루며 허
 를 놀림을 보고 정신이 아득하야 크게 부르지져 왕황던후로는 살피소서 아 등이 무삼죄

로이런악형을당하리잇고하며서로붓들고통곡하니봉어관이다라드러여려궁녀를
구렁에밀치니못두린배암이얼크러져피도떨며살도떨흐니그경상을춤아보지못하
깃스되주는보고즐겨하야달기의등을어로만저왕이쳐의괴모한법이아니런들엇지
저궁녀를다사리리오하더라차설달기육척비파의원슈갑기를싱각고한그림을주에
게을녀왕이그림이죽대도형이니이대로지으면셔왕모의요지육렬이라그루에서잔
채하면자연선관선네하강하리니폐해이제선선으로노르시면년々익슈하야인잔부
귀를누릴이다쥬대희왕이집을뒤맛타지를고달기쥬왕하대부강상이가하니이다쥬
자아를불너그림을주어왕이도형대로루를지으면그공을크게쓰리라자애바다살
펴보니쥬란화각이영롱하야호박산호유리진옥으로지으니그거룩한경치는일필난
괴러라자애싱각하되내훈군을위하야이집을지으면던하저물이모손하고백성이도
탄에들거이요짓지아니하면죄밋츠리니찰하리벼살을바리고산간에숨었다가명쥬
를도오리라하고주왕이집을이대로지으면물력이과다할뿐아니라백성이도탄에들
거시오또사십년이라도필역지못하리이다쥬달기다려왕강상의말갓홀진대내히
만코병이자존지라인사를밋지못하리니찰하리백성의폐를덜만긋지못하다하니달
기왕강상이외방술사로중한벼살을하얏스니런은을갑홀싱각은아니하고거죽말을
꾸며폐하를속이니그죄죽염죽하니이다쥬왕어쳐의말이올라하고전지하야강상을
잡아나리의포락을행하라하니자애왕폐해황음무도하야요비참언을드러싱명을살

해하고또죽대를지어하걸의행사를행코자하시니불구에사직이위티하고싱민이남
에게아일이하나이다쥬대로왕늙은필부엇지던자를비방하는다하고좌우를명하야
자아를밧비참하야젧담아국법을밧히게하라하시니무새잡으라하거늘자애몸을빼
쳐루아래를바라고뛰어나려가거늘쥬보고성내며또우셔달기다려왕져로필부레절
업시뛰어나려감을보라하고무사를명하야급히나래하라하니자애룡덕던구간던을
지나구룡교를다사라자애무사를도라보아왕이희는싸로지말나내한번죽을싸름이
라하고구룡교다리아래로뛰어들며간곳을아지못할너라무새도라와쥬에게자애물
에빠져그척업습을고한대쥬왕제죄를알고죽도다하고달기다려왕강상이죽엇스니
출다려죽대를지으라할고달기왕복백후송후호곳아니면공을일우지못하리이다쥬
죽시송후호를명하야죽대를지으라하니송후호는만고간신이라엇지사양하리요송
후희죽대를지을새그죄물들은이로헤아리지못하고만민의괴로움은비할씨업더
라각읍에방뱃쳐한호에군정셋식내여역사를하게되거역하는자는참하고연고있
는자는돈을밧치되돈을아니밧쳐도또한찰하리라하니백성의원성이하날에사못
치더라
차설자애구룡교물에셔슈법등을행하야송이인집에오니마씨문왕군지엇지황망이
오시느뇨자애와내벼살을밧치고왔노라마씨대경왕이엇진말씀이니잇자애쥬의
무도한말을닐녀왕이내남군이아니라이제서기로가고자하하니낭자는나를쫓차

가성주를도으며복록이만흐리라마씨왈그대의방술사로벼살이대부에 이르러복
 록이적지아니하거늘엇지던자의덕을저바리고님군을비만하느뇨자애왈낭자야방
 심하라지금부터서기에가성주를찾고자하노니엇지혼군을섬겨내도덕을문허바리
 리요그대날과한가지로서기를가면벼살이일푼에닐으고머리에화관을쓰고몸에처
 의를납으리니엇지아름답지아니하리오마씨소왈그대말이그르도다이제던자의은
 덕을납고복록을바리고서기로가자하시백이그대를보고무삼일노놓흔벼살을
 주리요자애왈그대는녀제라대도를아지못하는도다사람이다던쉬었나니내은왕을
 바리고서기로가려함도또한던쉬라엇지혼군을섬기리오마씨왈내그대와부위되었
 스나나는도가에성장한사람이라엇지본국을바리고타향으로가리오자애왈그대나
 를쫓지아니하고타일뉘웃지말나마씨왈첩은본대고향을바리고서기로가물원치아
 니하나니그대는가나나는부모를쫓차본국에잇스리니엇지뉘웃침이잇스리오자
 애탄왈그대나를조차가지아님이반다시다른뜻이잇도다마씨대로왈그대엇지이
 려말을하나뇨내이제던자게알외여가라하시면당갓이가리라하고량인이서로닷도
 더니송이인이그쳐손부인으로더브러말녀왈현데야마씨발셔그대를쫓치아니려하
 니그대는한장글을지어표를삼게하고서기로가아름다온비필을엇고성주를섬기라
 자애월형장과슈씨의교훈대로하리이다하고필묵을나와마씨로더브러유련하든정
 을표하니마씨조금도유련하는빛치업거늘자애왈그대는내정과갓지못하다하고서

기로향할새이인이술을부어전별하야왈현데오늘조가를바리고성주를차지라가니
 실노아름답도다하고눈물을썩려리별하니마씨제집에도라가개가하니라자애힝하
 야확하를건너임동관에이르니길에백성철팔백이모다서로붓들고동곡하거늘자애
 왈너희엇지이러듯슬허하나뇨백성들이대왈던지송후호를명하야록대를지를척잠
 잔이라도더대면형벌을주나니우리겸대지못하야이씨에와서기로향하더니장릉병
 이내여보내지아니하고도료도가로잡아보내라하니원컨대대부는우리를관애나
 아가게하소서자애모든백성을다리고곤륜산을바라고진언을염하고고두하니문
 득한떼구름이공중으로나려와모든백성을타와서기로가니다만귀에바람소리만
 들니더라한시각에오관을지나금계령에다르니자애중인다려문왈너해이곳을아
 는다중인이고두왈대부의신과한도술로우리등이여러관을지나왔스니원컨대부
 는의지할곳을가라치소서자애왈이곳은금계령이라여등이서기승상부를차져가면
 자연조흔도리잇스리라하니백성들이승상부에가승상산의성에게은연고를고하
 니승상이제자게뵈옵고고한후창고를여려진출하고농업을힘쓰게하니라자애거
 민을구한후산천을유람하다가한곳에이르니이곳은위슈가이라산천이슈려하야송
 죽은의사하고푸른버들은시내를들넋스니진짓은사에반선할곳이라인하야그곳에
 서매일나시대를드리워세일을보내더라
 각서서백후의제자백읍피문무를모화갈아대부천이유리성에갓치신지철년이라우

리형데구십구인이잇셔무엇세쓰리요내이번가셔부친의대신속죄하러하니경등은
 자실하라상대부산의성이주왕중공의임별하실시말삼이철년액이지내면자연히환
 국하리니브졸습시동치말나하야게시니공직그말삼을싱각하사사신을부러안한
 하심만아르시미조홀가하나이다백읍괴왕대부는여러말말나내맛당이부친의죄
 을대신하리라하고내면에드러가모친래희게하직하니래희싱각하되자식이아비의
 대신함이당연한일이라말나지못하리라하고의윤하시고다시일너왕내국사를누게
 부락한다티왕안일은희발형데에게맛기고맛일은산의성남궁팔에게부락하얏나이
 다래희는해야이번에가거든조심하여라하시니백읍고하직고나와희말과산의성
 등에게부락하고떠나니희발의구심팔형데와산의성남궁팔등문무백관이심리장
 정에나와전송하니백읍괴눈물을씩러작별하고즉시말을노화오관을지나황하슈를
 건너밍진에이르러도가성회관역에서쉬고이른날승상부를차져승상비간을보고부
 친대신속죄하라왔슴을고하니비간이백읍고에손을잡고차단함을마지안나하고
 적성루에나가주의제주왕셔빅후의아달백읍괴공을밧치고아비대신속죄하랴와
 나이다하니쥬명하야루에오르라하니백읍괴무릅으로히하야루에올나빅복한대쥬
 왕네아비님군을거역한죄크거늘네가공을밧치고죄를속하랴한다하니가위효제로
 다하니백읍괴쥬왕신의아비의죽을죄를스하시고유리에두시니호성지덕이여런하
 오나이제신으로아비의죄를대신하시고신의아비를본국으로도라보내시면신이간

되도지하와폐하의성덕을만분지일이나갑사오리이다쥬백읍괴아비를위하야원
 정하는사연이공축함을보고감동하야죄를주니백읍괴사은하고난간밧게섯스니달
 괴백읍괴의화려홍용모와청슈헌면목과붉은닙술과흰니와언어유순함을보고홍
 모하는마음을억제치못하야쥬렴을것고나오거늘쥬달괴다려왕셔빅후아들백읍괴
 공을밧치고아비죄를속하랴하니그뜻이가공하도다하니달괴쥬왕첩이들으니백
 읍고의거문고라는법이제상에쥬이업다하오니헌번시형하소서쥬왕어체엇지아는
 노달괴왕첩이비록녀지나어려서심규에잇슬때부모에게들은비로소이다쥬는쥬
 적에무리라달괴의요연을듯고문득백읍고를명하야달괴에게죄오라한대백읍괴달
 괴에게절한대달괴왕백읍고야내드르니네거문고를잘탄다하니한곡조를시험함이
 엇더하노백읍괴왕신은드르니부피병이잇스면자식된죄옷을벗지아니하며밥을
 편히먹지아니한다하니이제신의아비유리에고초를겨는대신이참아엇지거문고를
 타즐거음을하리잇고쥬왕백읍고야네이런경을당하야한곡조를무르록게라면네아
 비를노화본국에도라가게하리라백읍괴이말을드르매크게기거문고를무릅우혜
 인고옥슈를드리한곡조를타니청아흔소래봉이구소의올갓더라쥬듯고크게기거
 달괴다려왕어쳐의소문과갓다하고적성루에잔채를크게베풀나하니달괴싱각하되
 내백읍고로더브러난봉의우비지락을일우리라하고큰잔에술을부어쥬를진취도록
 권하니쥬연하야마시고것구러지거늘달괴궁녀를명하야통담우해누이고거문고를

을나와하나흔달기라고하나흔음고를주어 서로 화답할새 달기 화용월래로 주술포를 받
 기하고 추파를 흘려 정을 보내여 음고의 마음을 혹라케 하나 음고는 다만 거문고 말라니
 달기 시녀를 면하여 자리를 즈고 꺾히며 고음을 인도하거늘 음고의 혼비백산하여 쓰러
 고 왈 낭사는 만승국모시라 신이엇지 감히 꺾해안조리잇고 하고 업대여 머리를 드지
 아니하니 달기 왈 근신은 부자일체라 내 꺾해안조리잇고 하니 방해로 리요하니 음고 왈 낭
 사이신으로 구체의 행실을 하게 하시미라 신이 비록 만번 죽사와도 봉승치 못하리로서
 이 다 달기 뜻을 일우지 못함을 한하여 생각되져 필부를 분골쇄신하여 내한을 풀니라 하
 더라 날이 밤에 매 쥐 달기 더러 문왈 밤에 거문고를 멧번이나 익었나뇨 달기 왈 음고 거
 문고에 음난한 마음을 품어 첩을 조롱하더이다 쥐대로 하야 문죄하려하거늘 달기 왈 폐
 해절로 다시 거문고를 시험하야 보소서 쥐음고를 명하야 다시 거문고를 혼곡조를 다짐
 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시니 음고 피싱각하되 내그물에 걸닌새 버셔날 슈업스니 충
 간이 나하다 죽으리라 하고 이에 한곡조를 주하니 곡조의 하얏스되 포락채분이 참혹함
 이 여려해분사하도다 사옹을 물니 미여 사직이 감영하리로 다 음고를 모함하여 만번
 죽을 쓰름이로다 달기 그를 거절함이여 사척에 유전하리로 다 음고 노래를 맞치고 머리를
 두로혀 거문고를 달기 압해더지니 소반이 썩여져 달기에 침범하니 달기 것구
 러진지라 쥐대로 왈 필뫼 거문고로 황후를 치니 역적을 썰니 채분에너 허사갈에 게물
 니여 죽게하리라 달기 왈 음고의 죄는첩이 처치하리이다 하고 슈죽에 못을 박고 칼노살

을점여 죽이니 음고 죽기에 이르도록 썩짓기를 마지아니하더라 달기 주왈 희창이 선던
 슈를 잘안다 하니 음고의 고기로 썩을 밍드러 희창을 주어 먹으면 선던 슈를 안다 하는 말
 이 허언이니 노회보늬여 황상에 호성지덕을 펴거시오아니 먹으면 진기성인이라 죽여
 후환을 쓰름이 가할가 하나이다 쥐왈 어찌의 말이올라하고 음고의 고기로 썩을 밍드러
 유리의 보내니라

차설서백이 일사는 심시 자연살난하야 한패를 엇고 크게 놀나 눈물을 흘려 왈 해애아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왜 신지환을 당하얏도다 그러나 자식의 고기를 먹지아니하면 죽
 기를 면치 못할 것이요 먹자하니 엇지 차마 하리요 하고 소리도 못하고 숨호를 먹음고잇
 더니 이윽고 소관이외 전지하되 황상이어 제산양하사 사슴을어더 썩을 밍드러 현휘
 오리 유리에 고초함을 궁축이녀기사사 급하신다하거늘 서백이 썩러 왈 희창이 죄중
 하거늘 성상이안마의 슈고로 음을 하사 범죄신을 록병을 사급하시니 복원페하는 말슈
 무강하소서 하고 세조각 록병을 다먹고다시 절하야 사은하거늘 사관이 도라와 그대로
 고하니 쥐왈 희창이 선던 슈를 안다 하는 말이 허언이라 하고 특별이 도셔하야 희창을 노
 화환국하라하니 희창이 사관을 따라적성루에나아가 부복 주왈 범죄신희창의 죄죽염
 죽하거늘 띤은을 낚사와다시 띤안을 뵈오니 원페하는 만제사사하소서 쥐왈 경이 철년
 을 유리에잇서 원망하는 말이 업고도로 허국조면장하며 띤태평하기를 번다하니 짐
 이경을저바림이 만도다 하고 특별이 잔치를 배설하고 왕작을 드으고 백모 화월을 주어

정벌을오로지하게하고매월에륙미일천석씩주고문관이인과무장이원을주어본국
으로가되유과삼일후비결사은하고가라하니라차서서벽이사은하고나오매승상비
간과미자와의자와대소관원이모다경하할새성중백성이남녀로소업시다와일오
대충냥하신휘금일이야익을면하시고고국으로도라가시니천제々々를누리소서
하고슈무죽도하는모양이보기에거룩하더라이때전면의과치검극이삼열하며일지
인매일이니는무성왕황비호라말게나려하례왕이변현휘던사를만나영귀하시니
천만깃분일이라말장이한말슴이잇스니가히용납하시리잇가서벽이공경대왕명대
로하리이다비회왕방금에요비와간신이농권하매조정을미들수업스니현휘박비이
그물을버셔당야에떠나소서하시벽이올히녀겨사례하고그날밤에떠나히하야쥬
야로밍진을지나황하를건너님동관에니르러멀니바라보니퇴설이자옥하며남합소
래은사이들니거늘서벽이한왕내가무성왕의말로미리셔남을간신들이참소하도다
하고말을치쳐닷더라

차설서벽이밤에급히감을비중우흔이쥬에게고하대성지에희창으로유과삼일후가
라하였거늘제가만에도주하얏스니그죄맛당이버힐지라원폐하는급히나리하샤후
환을덜게하소서쥬대로하야신무장군은과피와되키량장을명하야삼천철기를거나
려희창을나태하야국법을정히하라하니라차서벽이뒤헤쥬병이싸름을알고서
련을바라고닷더니공중으로셔우퇴소래나며한고이한형상이나려와말압혜업대여

고알서백후로야시니잇가서백아늘나살펴보니신장이두길이요엇개에두나태잇고
얼골이프르고털은높고안광이불빛치오어금니는볼을뚝뚝스니인간에보던바쳐음
이라서백왕내과연그러하거니와네가사탐인다귀신인대왕희의종남산운중자에
게길닌되진자로소이다사부의명을바다부친의위급한화를구하라왔나이다어언간
쥬병이당하거늘되진재두나래를피공중으로소삿다가나려와진전의셔며크게호등
하니군재정신이어즐하야중군의보하되한사나온귀신이길을막나이다하니은과피
되키대로하야말을노하내다라대호왕네엇디흔업축이완대감히왕사를막나노하
고갈을들고다라들거늘되진재또호호대호왕나는서백후문왕의데백자되진자이라나
의부왕은성인군재라사군진충하시며사천지효하시며봉공슈법하사선절을다하
시거늘무단이철년을갓치여계시다가다형이사를만나귀국하시거늘너희간신이롱
권하야또핍박하니내너희를편갑도아니보닐것이로대내사부의교훈과부왕의명을
밭드려살너도라보되니나의용맹을보라하고두나리를펼쳐공중으로올으며동서
남북으로치빙하니바탈과우퇴소리런디진동하고황금곤괴운은무지킴치두우를
제치거늘은되량장이흔번바라보매흔비백산하야쥬슴듯군을거두어도맛하니라되
진지나려와서백개뵈은대셔백왕해야철제소애엇지도술이이러하며네형용이엇
지하야저러한다되진재대왕일々은사뵈해아를불너닐으시되네부친의화액이시각
에잇스니후원모쳐에가두열매를싸먹고박비하산하야네부친의화액을구하라하시

기로급히후원모쳐에가보은즉그화요최만말한가온대한나무에열매두낫치열것
 들싸먹엇더니별안간에형용이이리되옵고나아와사부게되온대사뵈황금곤을쥬시
 며알네이병그를가지고받비가너의부친을구하야오관을넘게드리고곳오라하야계
 시니바라건대부친은해아에등에업혀눈을감으소서하거늘셔백이되진자의등에업
 히니다만귀에바람소래만들니더라술식간에나리니이곳은셔기금계령일너라되진
 재드대여하직을고하니셔백알아해엇지나를예다두고몬져도라가는다되진재왕부
 천은몬져도라가소서해애사부의명을어긋지못하옵이요해애도술이더은전한후다
 시되시리이다하고부재셔로눈물을써려리별하니라셔백이이에홀노행하야금계령
 을너머슈양산에일으니차시심츄를당하야금풍은소슬한대회포를금치못하야고원
 을바라보고오더니든득북은괴번득이며방포소래나며일대인때나아오니좌편은
 대자군남궁괄이요우편은상대부산의생이요문무백관과구십팔재나와복디하거늘
 셔백이처참함을니긋지못하야눈물나림을때닷지못하더라이때셔백의모씨대강이
 한과를엇고모월모일에서백이음을혜아려마조보낸이러라셔백이오다가크게한소
 래지르되내압혀죽겠다하고말게나려져혼절하거늘여러문위구하야이러나매입으
 로한덩이고기를도하니변하야한릇기되여셔호로닷더니연하야도하니당국병이라
 화하야제토기되여셔호로닷더라셔백이정신을슈습하야내던에드러가모자부뵈
 셔로붓들고일희일비하며장자백읍고를생각하고애동함을마지아니하더라차셔

백이환국후로붓터백성이더욱은부하야격양가를불으고져마다즐기더라일사
 은셔백이제신다려왕셔복정남에한대를지으되일홈을령대라하고백성과더브러재
 양을물니고상셔를응하고자하나도목지역을하면백성이슈고할가념너하노라산
 의생이주왕쥬공의은덕이초목금슈에밋츠시니만민이즐기자아니리업슬것이요또
 공전을쥬어시기시면무삼과로움이잇사오리잇고셔백이대희하야령대지를령을나
 리오시니셔기인민등이이령을듯고크게깃거왕우리등이하늘갓흔은덕을감홀바
 를모르더니이제령대를경영한다하시니아등이간되도지하야도감심하는배라엇지
 돈을바드리요하고즐겨하는소래원근에진동하더라셔기인민등이일제히부역하
 야제일하듯하야불일성지하니문왕이제신으로령대에올르사사면을보시다가목연
 이말삼이업거늘산의생이주왕령대를불일성지하얏삽거늘무엇이부족하샤즐겨하
 니하시나나잇고문왕왕대아래못하나홀파슈화괴세를응하자하나백성의힘이수고
 로올가하노라산의생왕령대도불일성지하얏사오니자근연못시야무엇이어렵사오
 리잇고하고백성에게하령하시셔기인민등이듯고일시에팔새못가온대백골이드러
 나매중인이집어바리거늘문왕왕이느나의허물이로다하고관곽을갓초아무드라하
 시니중인등이대호왕성덕이마른백골싸지밋츠니우리생민등에게췌치신우로지
 톱이야엇지다일으리요하고즐기는소래원근에들네더라령대령소역사를맛츠매문
 무제신과셔기인민등으로잔채하야즐기고령대에셔밤을지낼새문왕이일몽을어

드니나래듯천백액희장중으로드러오거늘놀나매다르니한꿈이라산의생을볼너
꿈말을이르니대왕옛적상종이꿈에나는꿈을보고부열을관축지간에마져왔스니대
왕의꿈에나는범을보아계시니대현을만나실길죄라주나라히장차흥할지니이다문
왕이대열하사환궁하시니라

차설감자애마씨를작별하고서기로향하야오다가백성을구하야오관을넘겨서기로
보내고산천을유람하다가한곳에이르니위슈가히라프른버들느러진곳에한소계잇
스니일흙이반계라청산록쉬진것은사에반환할곳이라자애인하야머물너매
일낙대를창파에드리워성주만나기를기다리더라잇때한초뵈나무를지고도채를들
고내가와와쉬다가강자아의고든다시밋기업슴을보고고이히녀어나아가문왕대인
은어대계서며존성대명이누구신지드러지이다자애왕내성은강이요명은상이요자
는자아요동해허쥬짜에잇노라초뵈왕나는서기백성무길이라대인다시에밋기업스
니무엇을낙그려하시느뇨자애왕내공후를낏노라무길이대소왕옛적에부열은부암
에서담싸다가상고종을만나현달하엿거니와대인은누를기다리나뇨하고웃기를마
지아니하거늘자애왕그대나의말을밋지아니할진대내그대를위하야신슈를보아쥬
리라무길이대왕대인이나의신수를맞치면절하고선생으로섬기리라자애이욕히보
다가갈오대오날그대가성하에서살인하난대화를만나리라하니무길이대로하야크
게쥬짓고나무를지고바로성중으로향하더니잇때문왕이령대를짓고거동하시는날

이라무길이가막혀가기어려움을생각하고급히드러가다가군재나무짐에달쳐인하야
죽으니문왕이잡아다가두되싸홀그어옥을삼고나무를짜가관원을삼고그속에가도
니무길이가그연고를무른대옥줄이대왕우리문왕의덕회초목금슈에밋쳤스매죄쥬
감히도망치못하나니라무길이가천지삼일에앙던탄왕집에철십로되날만밋거늘내
갓천지삼일이라뉘봉양하리요하고슬피동곡하더니맛참산의생이지나다가우는양
을보고그연고를무르니무길이를며고왕소인의죄죽염죽하나철십로되재당한대다
른자데업고다만소인뿐이라소인이갓천지삼일이라그사의로되죽엇겟삽기로가삼
이위여지는듯하와슬허하나이다산의생이죽은이녀여문왕세주하고두달을한하고
내여보내니무길이가죽시집에도라와로모를보고업더져동곡하니로되왕네산에가
범의밥이되얏는가하얏더니엇지사라온다하고서로붓들고동곡하다가무길이가전후
사연을고하고반계로가로움을보고사라날모책을못고자하나이다로되재촉하야보
내다차시자애록슈창파에낙대를회롱하며노래지어흥을돕더니무길이다라드러고
두배알하거늘자애모르는체하고다른대를보니무길이가소래질너왕데재왔나니다
자애정색왕네엇던사람이왕대남의흥을희짓는다무길이를며고왕데자는산쥬무식
한우맹이라대인의놀흔도덕을모르고무례한죄를지엇사오니용서하소서과연그날
나무를지고성중에드러가다가대화를만나이다하고견후슈말을고하고올며애길
왕오래지아니하야국가에서차질지라다시잡히여갓치면모자의명을보전키어렵

사오니복망대인은우리모자의잔명을구하야주소셔자애왕네전일지화는던정한슈
 니면치못하려니와이제는너를다시찾지아니케하리라무길이고두왕대인은덕이여
 차하시니우리모재해골분신하야도다잡지못하리로소이다자애왕네이에도라가
 집압해한구령을파고네드러가눈을감고누어오날밤을지나되네모친다려등잔에불
 을켜구령가에노코쌀석되를네몸에씩리고그우혜잡불을덥고밤을지내면자연화를
 면하리라무길이배사하고도라가가르친대로하고밤을지내리라이날자애무길을보
 내고그날밤삼경에머리플고발벗고인검을잡고북향사배하며왕무길이죽엇도다하
 니무길의주성이떠러지니라이른날무길이자아압해와사례하거늘자애왕오날부터
 내데재되어병법과무예를배호라지금은왕이무도하며사방에잔과일어나니은왕이
 엇지던하를누리리오대장위제상에처하며입신양명하야창개문호함이엿한일이
 라엇지산간에서초목과갓치씩으리오맛당히나의말을들을소나무길이고두재배왕
 사부의명을슈화라도피치못하려든하들며이런말삼야엇지밭드지못하리잇가하
 고그날부터무예와병법을이이니라이러구려슈삭이지나매산의생이무길의도라오
 지아니함을문왕께고왕무길이나라를소기고오지아니하니원컨대쥬공은금전을더
 저무길의존망을점복하사제집에잇거든명일관채를발하야잡아다가국법을밝혀지
 이다문왕이즉시한패를엇고탄왕무길이형벌을두리워구령에빠져죽엇스니엇지불
 상치아니하리오무길을죽인작시라하시고한탄함을마지아니하시더라재설문왕이

던에을으사쥬경을완상하시며민간절고들의논하시니차시는쥬삼월망간이라양류
 는시내를들녘고도화는만산에무르녹앗스니경개정히아름다운지라왕이중관을대
 하야왕이제쥬해방창하야만물이자락하는지라과인이경등으로더부러담청코자하
 니니엇더하노산의생이쥬왕전일쥬공이령대에셔비호를쌈씩어게시니이현사를
 어들중죄니산천에순행하사쥬색도완상하시고만민의절고를무르시며현량도차지
 심이맛당할가하나이다왕이의윤하사제신으로더부러산천을유탐하실새한곳에다
 스르니한초취되흐로나려오며노래불너갈오대륙죽은의스하고쥬주는유스한대
 금어를반계에숨어셔로만나지못하얏도다제상사람이교현의뜻을아지못함이여다
 만시내가헤빈나대를드리웁도다하거늘산의생이바라보니분명한무길이라문왕께
 주왕저노래부르는재전군사죽인무길이로소이다왕이무길을부르사문왕네엇던사
 람인나무길이문왕이신줄알고겁내여쭈려고왕소민이과연범죄하은무길이로소이
 다왕이쭈지저왕필취엇지나라를속인죄만번죽사와도맛당하오나소민의로되나허
 하신대무길이고왕소민이나라를속인죄만번죽사와도맛당하오나소민의로되나허
 철십여제라소민이다른형데쳐재업사오니소민곳죽으면모의정경이가련할지라시
 고로슬피우릿삼더니한토옹이그경상을공축이녀겨여차스스한도술을가라쳐주
 옴기로한갓로모봉양할마음으로국법을범하였사오니바라건대소민의로모정지가
 려하음을등축하옵소서문왕왕그토옹이대잇노노대왕에서슈리를가오면반계

잇사오니 그곳에서 낙시절하더이다 문왕왕네 그로용의성명을아는 다대왕동해허쥬
 사람강상이라하더이다 산의생이 주왕전일쥬공이 령대에서 삼쥬심을 응하야 대현만
 나설종되니 무길의죄를사하야 다리고 반계로가사이다 왕이 무길의죄를사하사 길을
 인도케하시고 다만산의생을다리고 반계로가사니 로용은 간곳업고 다만 뽕조대쥬
 이라문왕이 기리탄식하거늘 산의생이 주왕성쥬현사맛는레잇거늘 금일쥬공이 무단
 이닐으시니 현새일정피한가하나이다 옛적성탕이니 율을만나실때에 길일을택하고
 폐백을받드려마자게시니 이제쥬공도 성현의일을부바드소서하니 문왕이 청파에도
 라오사삼일재계하시고 폐백을갓초아반계로가실새 무길노 무덕장군을하이사압홀
 인도케하시고 산의생으로 일반문관을거나리고 남궁괄노 무장을총령케하니 그치금
 괴좌우에나렬하얏더라 이에 반계근쳐에니 르니 강자에 위슈가해안자바야 흐로낙
 시를희롱하거늘 문왕이 감히바로나아가지못하고 자아의 등뒤헤이유허서게시더니
 자애풍경을사략하야 노래하야 왈셔풍이이러남이여 백운이날니도다 세월이임의점
 을미여나알니드 무도다 하더라 자애노래를맞치고 낙시로고기를희롱하거늘 문왕
 이나아가 절하야 왈희창이선생을뵈오랴와나이다 자애 못드른체하고 다 른대를보거
 늘왕이반일을셔게시되 조금도대만한마음이업더라 또절하야 왈원전대선생은희창
 을도라보소서 자애그제야 문왕을도라보고 낙대를더지고복지주왕신이성군오심을
 아지못하오니 죄를용서하소서 문왕이 급히붓드러일희여 왈원전대선생은창을가

라쳐도탄에든백성을건지시기를바라나이다 자애배사왕신이천하나히만삼고재죄
 천박하와성교를봉송치못하리로 소이다 문왕이또갈오사대선생은셔도백성으로하
 야금복을누리게하시고희창의구구한뜻을저바리지마르소서하고레단을니사
 애왕쥬공이신을이대지관대하시니엇지명을거역하리잇고마는 다만신이재릉이업
 셔세상에나기를붓그러하나이다 왕이이에 산의생과 무길을명하야 위의를갓초아성
 중에드러올재만성인민이현인마져음을보고셔마다깃거왈대왕은택을갑지못하야
 한이되거늘또어진사람을마자오시니셔도백성의복을엇지다일으리요하더라
 차설문왕이선군을사모하사자아를대공망이라일카르시고승상을삼아정사를다태
 공게품하시고대연을배설하야제신과즐기시다 문왕이승상으로더부러정사를다사
 리매국태민안하고가급인족하야백성이덕육경양가를부르더라세월이여류하야문
 왕의춘취구심철제에니르러병환이침중하시매차자발을도라보사갈오사대파인이
 죽은후에승상을날과갓치섬기되 사상보라부르고 범사를승상께품결하라하시고
 흥하시니발이죽위하매이무왕이시라
 각설셔궁귀비황씨낭々は은무성왕황비호의누이요계패관총병황몬의네라정일초일
 사을당하야무성왕부인가씨셔궁황비의궁에드러가조알할새문져정궁에드러가황
 후세조하하니달과죄를쥬고문왕부인의년과얼마나되느뇨부인이대왕천한나히
 마흔아흔이니이다 달과왈나에서여 님해가우히내져사로섬기리라하거늘가부인

왕낭々は만승국모시고첩은한낫지어미라엇지 붕이 닳하고 짹하리잇고 달과 왕부
 인은과히겸사치마르소서내비록초방에귀하다하나소후들의지나지못하고져々는
 무성왕에부인이요또황비와자매니또한국척이라무엇이나즈이잇스리요하고져성
 루에잔채를배설하야판대할새달기는우해안고가씨는아래안져술을권할새삼사
 술의주왕이일으거늘가부인이후정으로피하얏더니달과주에게가부인이자색잇습
 을고하고가부인을청하야왕져々야서궁비와자매간이며던자제조알함이방해롭
 지아니라하고청하거늘가부인이대경하나임의피할슈업셔나와조현한대쥬겘눈으
 로바라보나가씨과연자색이아리싸온저라쥬명하야안즈라하니가부인이주왕폐
 하와황후는만승지존이사라신첩이엇지감히안자리잇고만번죽사와도봉행치못하
 리로소이다하고혜아리되내달과간계에빠졌스니죽기를면치못하리라하고이에부
 복주왕임군이신하의안해봄이레아니라원컨대폐하는신으로하야금루에나려가
 게하시면성은이하날과갓갓나이다쥬왕부인이안지아니하면짐이니러져々한잔술
 을밭들이엇더하노하고잔을들고이러져々문을급혀술을권하거늘가씨성낸털이충
 던한지라잔을빠져쥬의얼골을향하야갈겨따리며대즐왕혼군아나의장뵈나라를
 위하야충성을다하거늘그공을생각지아니하고달과말을드러신하안해를욕되려하
 는다하고또달과를향하야왕네죽을싸홀생각지아니하는다쥬대로하야잡아나리
 라하니가부인이크게소래하야왕뉘감히나를잡는다하고몸을도로혀난간압해져々

크게부르지저왕황장군아첩의몸이명절은전하거니와가련타내제낫아들을뉘거두
 어쥬리요하고몸을날녀한번뛰여루아래나려져분골쇄신하야죽으니라차설져궁차
 관이황낭々제고하되가부인이져성루에떠러져게시다하거늘황비대곡왕달과무
 고히내슈々를할해하얏다하고거러져성루에올나가쥬를가라쳐쥬져왕내형이등
 으로해구를치며남으로만이를물니치매쥬야노々하야나라를진정하니그충성이엇
 더라하리오내쥬원조에조하함이국법을직희미라혼군아내애색하는무리로내
 슈々の자색을보고감상을범하야음난코자하야내슈々를참사케하는다황비본대의
 력이잇는지라달과를가라쳐쥬져왕이음난한요물아던자를고혹케하야내슈々로
 하야금루에나려죽게한다하고인하야달과를잡아구을니며쥬먹으로이삼십차를
 쓰리니달과비록요정이나견대지못하야다만부르지저왕폐하는첩의목숨을구하소
 셔쥬나와말녀왕달과는관계한일이아니라내쥬쥬침을축노다가스사로붓그러
 루에떠러짐이라하거늘황비더욱로하야혼군아내달과를쳐죽여슈々の원슈를잡홀
 난다하고손을드러달과를철새손노라감을결을치못하야쥬의뺨을갈기니쥬대로하
 야다라드러황비의머리채를잡아쥬리치니가련하다황비루아래떠러져또새골분
 신하나라차설무성왕이형대비표와의데황명과쥬기와룡환과오검과아들황천녹천
 작천상으로도더부러월초냥선의잔채하더니가부인시비급히와엮더져을며고왕부
 인이져성루에떠러져죽으며황낭々이쥬왕과달과와싸호시다가쥬왕이낭々을루아

래 밀쳐져서 쇠골분신하였나이다 하거늘 황천국은 나히 십사제요 황천작은 나히 십이제요 황천상은 나히 칠제라 모친이 루에 쪼려져 죽었단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니 그 경상을 참아보지 못할네라 황비호의 두아오와 네장쉬대호와 혼군이 슈시자색을 보고 음난코자하매 슈시루에 쪼려져 죽으니 낭々이 슈시참사함을 보고 혼군과 닷튼 일이라 아 등이 혼군을 처치하고 어진 남군을 세워 낭々과 부인 원슈를 갑호리라 하고 여러 장쉬 갑납고 말라고 바로 오문을 향하여 닷거늘 황비호크게 불너 왈 우리 황문이 제々 충낭지 개라 한녀자로 하야 금반녀 됨이 불가하다 하니 황명왕황장이 하나을 알고 들은물은 은도다 옛적에 성량이 하걸을 남소에 내쳤스니 혼군을 업시 하야 만민도 탄을 덜고 낭々과 슈시 원슈를 갑고 자하니 형장은 혼자 안저 충절 만직히라 하거늘 비희묵々 부답이 러니 한소래를 크게 질으며 제장을 분부 하야 일천군을 거나려 뒤를 따라 하고 갑납고 오색신우를 타고 뒤도를 들고 내다르니 룡이 벽해를 뒤집는 듯하다 차시에 쥐가 부인과 황비에 참사함을 마음에 번뇌 하야 달기를 원망하고 안젓더니 잇새 황명주귀 등이 문을 두다리며 웨여 왈 혼군아 밤비나오라네 황음무도 하야 요비의 참소를 듣고 충낭을 살해하고 만민을 도탄케 하며 신하의 안해를 음난하랴 하니 네 죄만 단에 내지라 밤비나와 죄를 밧으라 하니 슈난장이 급히 슈에게 고하되 황비호 등이 반하야 오문의 외즐 육하며 싸움을 청하나이다 하니 쥐대로 하야 왈 필뵈었지 이려 하리요 하고 룡봉투구의 금쇄갑에 룡포를 썬고 팔보안의 소요마를 타고 장창대검을 들고 호가어 림군을 거

나려 노고 총련 하야 나아오니 그 위엄은 가위 만승지 쥐러라 황비호 등 여러 장쉬 일제히 내다라 절전하니 함성이던지 진동하더라 쥐야 모리 용맹한들 진실노 독뵈라 었지 여러 맹장을 당하리요 슈십합에 다라 나거늘 황명주귀 등이 오문을 세쳐드러가 슈를 버히려 하거늘 황비희 급히 불너 왈 불가하다 남군이 아모리 실덕한들 신재되었지 참아 할배 리요하고 군사를 거두어 화부로 도라와 일문권속과 제장군졸을 거나려 조가를 썬날새 제장 다려 왈 찾어대로 향할고 황명주귀 등 왈 남군이 바르지 못하면 신해외국으로 간다 하니 이제 서기 무왕이 성덕이던하에 덤혀던 하삼분의 그들을 두었스니 원전대형 장은 서기로 가사이다 비희기리 탄식하고 가권과 장졸을 거나려 서기로 향할새 맹전을 지나 황하슈를 건너 오관을 나와 폐패 관에 이르러 부친 황공과 합병하야 금계령을 너기 산에 다스르니 산천이 슈려하며 남녘 길을 사로하고 인물이 번성하니 비희 탄왈 진짓 성인의 나라 히라 하고 승상부에 나아가 당후관을 불너 조가 황비희음을 고하니 자에 청하거늘 비희 첩하압해나아가 절한대자 내려가 붓드러 당에 올너 사례 왈 대왕을 멀니 맛지 못한 죄를 사하소서 하고 빈쥬례로 절좌하니 비희 사々 왈 비호는 나라를 비반하는 신해라 었지 승상과 절좌하리잇고 자에 왈 절일강상도 또한 대왕의 휘하에 잇섯거늘 었지 이려 말삼을 하시나 나잇고 비희 왈 말장이가 위수 풀일은 새라 원전대한가지 를 빌너 길드리기를 바라나이다 자에 몸을 급혀 문왕대왕이 무삼일 노은을 바리고 서기로 오시니 잇고 비희 왈 슈왕의 포학이 날로 심한 충원조를 당하야 나의 처가 달고 간계에 싸